

“AI·에너지 심장부 도약...‘농어촌 수도’ 완성”

병오년 새해설계



명현관 해남군수

“올해 해남군은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AI·에너지 수도’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붉은

솔라시도·화원산단 미래 산업 변혁
에너지 이익 공유제·기초소득 실현
AI 접목 스마트팜 ‘미래 농업’ 선도
SOC 가시화·‘500만 생활인구’ 목표

말의 기운을 받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기회가 현실이 되는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1일 “해남은 더 이상 한반도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며 “2026년을 해남의 미래 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의 핵심을 ‘미래 산업 육성’과 ‘에너지 주권 실현’, 그리고 ‘군민 행복’에 두고 역량을 총 결집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와 에너지 산업의 본격화다.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과 LS그룹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 항만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2028년 조기가동을 목표로 해남을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속도를 올린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주거와 교육, 의료가 결합된 ‘인구 10만 명품 신도시’로 거듭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남읍-솔라시도 간 이동 시간을 12분대로 단축하는 도로 확장 공사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에너지 혜택’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해남형 에너지 모델’도 구체화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군민의 소득으로 환원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공공 주도 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 참여형 집적화 단지를 조성한다.
해남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 대전환’을 맞이한다. 올해 착공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을 실현한다.
또한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과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잘 사는 농어촌’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과 강진-해남 복평 구간, 국도 77호선 마지막 구간인 화원-압해간 연결도로는 2027년 완공

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등이다.
특히 서울-해남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아울러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솔라시도 정원도시를 잇는 관광 벨트를 구축해 ‘500만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뒀다.
복지와 행정 혁신도 놓치지 않았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과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 청렴도 1등급 달성의 저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 행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왔다”며 “군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위대한 해남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Pre 해조류박람회’ 청사진 마련

오는 5월2일 개막...‘블루카본’ 조명
산업형 박람회·국제 학술 심포지엄

해조류의 보고장 완도군이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신발 끈을 묶어왔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 짓는 운영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오는 5월2-7일 6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해조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2028년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시 연출과 회장 운영,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주제관인 ‘완도해조



류센터’의 변신으로, 군은 이곳을 ‘해조류 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바다의 숲이라 불리는 해조류가 탄소 중립의 핵심인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기술을 도입해 시각적인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저탄소 퍼포먼스로 박람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바다낚시 체험, 친환경 물병 만들기 등은 가

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유망 수출 기업 등이 참여하는 60개 규모의 산업·홍보관이 들어서며, ‘산업형 박람회’와 해조류를 미래 신소재로 조명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산업적 깊이를 더할 방침이다.
이범우 부군수는 “이번 Pre 박람회는 완도가 세계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안된 콘텐츠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오늘부터 고추·대파 육묘 신청 접수

공급 물량 21만·22만주 규모

영광군은 11일 “2026년도 고추 및 대파 육묘 신청을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추 육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파는 사업 효과 검증에 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공급 물량은 고추 21만주(50구 기준 4천200판), 대파 22만주(220구 기준 1천판) 규모다.
농가당 신청 한도는 고추 최대 2천주(40판), 대파 4천400주(20판)이며, 공급 가격은 1주당 고추 300원(판당 1만5천원), 대파 27원(판당 6천원)으로 책정됐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자원연구팀(061-350-5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욱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가 육묘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과 고령 농가의 일손을 덜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 흑산면, 행복 나눔 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천

신안군 흑산면은 “최근 면 소속 자원봉사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뇌병변 장애로 집안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저소득 독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원봉사자회 회원들은 오랜 기간 방치된 불필요한 물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며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안현주 자원봉사 회장은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 흑산면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빈틈없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홍 기자



신안군 흑산면 면 소속 자원봉사자회가 최근 거동이 어려운 독거 노인가구를 방문해 오랜 기간 방치된 불필요한 물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목포시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 모집

내일까지...독서 문화 증진 목표

목포시는 11일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에 참여할 지역 서점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를 협약을 맺은 지역서점에서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대출 이후 이용자가 반납한 도서는 도서관이 구입·등록해 장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 관내에 방문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도서(서적) 관련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서점이다.
다만, 방문용 매장이 없거나 납품 위주로 운영되고,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점은 목포시 또는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목포여울림도서관(사진)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김형순 목포시 인재육성과장은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민에게는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서점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사업”이라며 “온라인 대형 서점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민의 독서 편의 증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서비스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천100여명이 약 2천권의 도서를 대출하는 등 꾸준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

매월 둘째·넷째 주 상담

함평군은 11일 “건축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을 본격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상담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건축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무 경험자 풍부한 건축사 6명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운영돼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누구나 건축 허가·신고 절차, 가설 건축물 축조, 위법 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 전반에 걸친 궁금증을 무료로



해소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진도군 ‘툼 도시재생’ 홍보 책자 발간

진도군은 11일 “진도읍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홍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진도읍 도시재생’ 홍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총 130쪽(182mm×251mm) 분량으로 ▲진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진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파트1) ▲주민단체 소개 ▲옥주골 창작소 입주 작가 소개 ▲성과발표 & 수상소식 등을 담고 있다.
“진도읍 도시재생사업”은 방치됐던 유휴부지인 (구)진도우체국과 (구)중앙의원, 두 공간을 도시재생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공동체형성 ▲생활사 회간접지원(SOC) 확충 ▲문화예술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노후 주거지의 거점 공간 조성 등에 이바지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남은 사업 기간에도 주민



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도시재생, 진도군의 정체성을 살리는 과제를 풀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옥주골 어울림센터, 옥주골 창작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점 방문객들에게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도시재생의 중심지로서 진도읍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